

201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의 중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메시지 6

에베소서

(2)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새 사람의 기쁨

성경: 창 1:26, 엡 2:14-16, 4:20-24, 골 3:10-11, 고후 5:17

I.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단체적인 사람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 창 1:26, 엡 2:15.

-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그분을 대표하도록 그분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 — 창 1:26.
- B.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싸운다 — 골 3:10-11, 엡 2:15, 4:24, 6:10.
- C. 옛 사람 안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것이 새 사람 안에서 회복된다 — 창 11:5-9, 행 2:5-13, 골 3:10-11.

II. 하나님의 시이자 걸작품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었다 — 엡 2:10, 15-16.

- A. 우리는 15절에 있는 ‘ 자기 육체 안에서’ 와 ‘ 자신 안에서’ 라는 두 문구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히 2:14, 죄—롬 8:3, 요 1:29, 타락한 사람의 육체—갈 5:24, 세상, 코스모스, 사탄의 악한 체계—요 12:31, 옛 사람이 대표하는 옛 창조물—롬 6:6, 분리시키는 규례들인 율법—엡 2:15)을 종결하셨다.
 - 2. 범위와 요소와 본질이신 “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 a.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 곧 교회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범위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고 요소와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하나로 만드시는 한 새 사람의 요소와 본질이시다 — 비교 골 3:10-11.
- B.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후에 옛 사람을 십자가로 끝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곧 우주 안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항목,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 되게 했다 — 롬 6:6, 고후 5:17.
 - 1. 헬라어로 ‘ 걸작품’ 은 ‘ 포이에마’ 이며 ‘ 시로 기록되거나 만들어진 것’ 을 의미한다.
 - 2. 시적인 기록이 시로 여겨질 뿐 아니라 만든 사람의 지혜와 설계를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도 시로 여겨진다.
 - 3.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설계를 표현하는 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람이다 — 엡 3:10-11.

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는 지혜가 되셨다 — 고전 1:30, 비교 창 3:24, 엡 5:25-27.
 - a.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5:18.
 - b. (우리의 현재를 위한) 거룩하게 함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있으며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다 — 롬 6:19, 22.
 - c. (우리의 장래를 위한) 구속, 즉 우리의 몸의 구속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도록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변형될 것이다 — 롬 8:23, 빌 3:21.
5. 우리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을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여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에 대한 지혜로운 전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III.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 버리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 엡 2:14-15 상.

- A. 2장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할례와 안식을 지키는 것과 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 등등의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이다.
- B.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1.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규정들과 민족들을 나누는 모든 규정들을 없애버리셨다 — 엡 2:15, 골 2:14.
 2. 바벨의 때로부터 인류는 생활과 경배의 방식에 관한 규례들로 인해 나누어져 왔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벨을 이겨야 한다 — 창 11:1-9.
 -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나 국민성이 결코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 비교 골 3:10-11.
 - b. 세상의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명성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명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명성은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교만을 버리기를 기꺼이 원한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시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V. 한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 골 3:10-11.

- A.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의 구성성분이시다 — 골 1:27, 3:11.
 1. 그리스도가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서는 어떤 타고난 사람이 있을 (즉 어떤 민족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 신분이 있을)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다 — 골 1:10-11.
 2.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새 사람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 아무 것도 아니다.
 3. 한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계신다 — 골 2:17, 3:4, 11.
- B.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엡 2:15, 3:17 상.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한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2.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인격만을 가지고 있다 — 갈 2:20, 엡 3:17 상.
 3. 한 새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옛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은 반드시 제쳐져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한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 롬 6:6, 갈 2:20, 엡 4:22, 24, 3:17 상.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분으로 가짐으로써 새 사람 안에 있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 b. 우리가 한 새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c. 우리는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며 단체적인 새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의 생활(인격)과 우리의 움직임(생명)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고전 12:12, 롬 12:4-5.

4.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 한 새 사람’ 과 로마서 15장 6절에 있는 ‘ 한 입’ 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 같은 것을 말하고’ 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입들이 있었다.
 - b. ‘ 한 마음 한 뜻으로’ 와 ‘ 한 입으로’ (롬 15:6)는 비록 우리가 많고 우리 모두가 말하지만 모두가 ‘ 같은 것을 말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 1:10.
 - c. 비록 우리는 많고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 엡 2:15, 4:22-24, 3:17 상, 롬 15:6, 고전 1:10.

V. 한 새 사람을 위해, 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 엡 2:14 상, 15 하, 골 3:12-15, 2:14-18, 롬 5:1, 마 18:21-35.

- A. ‘ 판정을 내리다’ 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 심판관’ , ‘ 의장’ , 혹은 ‘ 모든 것을 통치자나 결정자로서 보좌에 오르다’ 로 번역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가진 불평이라도 해소하신다 — 골 3:13.
- B. 종종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 부분, 즉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과 중립적인 부분을 의식한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논쟁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적인 판정이 필요하다.
 1.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각 부분들이 논쟁하거나 다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결정하는 화평에 자리를 드리고 이 화평, 즉 새 사람의 하나가 우리 속에서 다스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관념을 제쳐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 C.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은 우리 사이의 모든 분쟁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하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화평을 가져야 한다.
 1.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달콤하게 보존되며 새 사람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유지된다.
 2.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다스림을 행사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 비교 사 9:6-7.

VI. 성경에는 네 단계의 기쁨이 있다.

- A. 신약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 시 51:12, 16:11, 사 12:2-6, 눅 15:7, 10, 23-24, 롬 5:10, 17, 10:12-13.
- B. 신약에는 교회의 기쁨이 있다 — 시 42:4, 43:4, 48:1-3, 95:1-2, 100:1-2, 146:1-2, 150:1-6.
- C. 신약에는 몸의 기쁨이 있다 — 고후 1:24, 7:13, 8:2, 빌 2:2, 살전 2:19-20, 유 24.
- D. 신약에는 한 새 사람의 기쁨이 있다 — 엡 2:14-16, 4:20-24, 골 3:10-11, 고후 5:17, 계 5:8-10.